1 미에현립미술관에 대하여

이 미술관은 1982년 9월 25일에 개관했습니다. 지금 미술관에는 6000여 점의 소장품이 있습니다. 르누아르, 모네, 샤갈이 프랑스에서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 사람인 무리요, 고야, 달리, 피카소가 그린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도시대(1603~186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에현과 관련이 있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조각가 야나기하라 요시타쓰(柳原義達)선생에게서 많은 작품을 기증받아 그것을 전시하기 위한 새로운 전시실을 마련했습니다. 이 미술관의 전시작품은 석달에 한번씩 바뀝니다.

이 미술관 활동은 작품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미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즐겨 감상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작품을 빌려오고 일본과 외국의 다양한 미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상파울루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프랑스 사람인 드가, 미에현과 관련이 있는 소가 쇼하쿠(曾我蕭白)과 이세카타가미(伊勢型紙) 등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훌륭한 미술과 미에현의 미술을 소개해 나갈 것입니다.

2 미술관 정보

관람시간／오전 9:30- 오후 5:00 (오후 4:30까지 입장)

휴관일／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휴관), 12월 29일~1월 3일

관람료(미술관 상설전시실과 야나기하라 요시타쓰 기념관)

어른	310엔(240엔)
대학생	210엔(160엔)

고등학생 이하 무료

( )안의 요금은 20명 이상의 단체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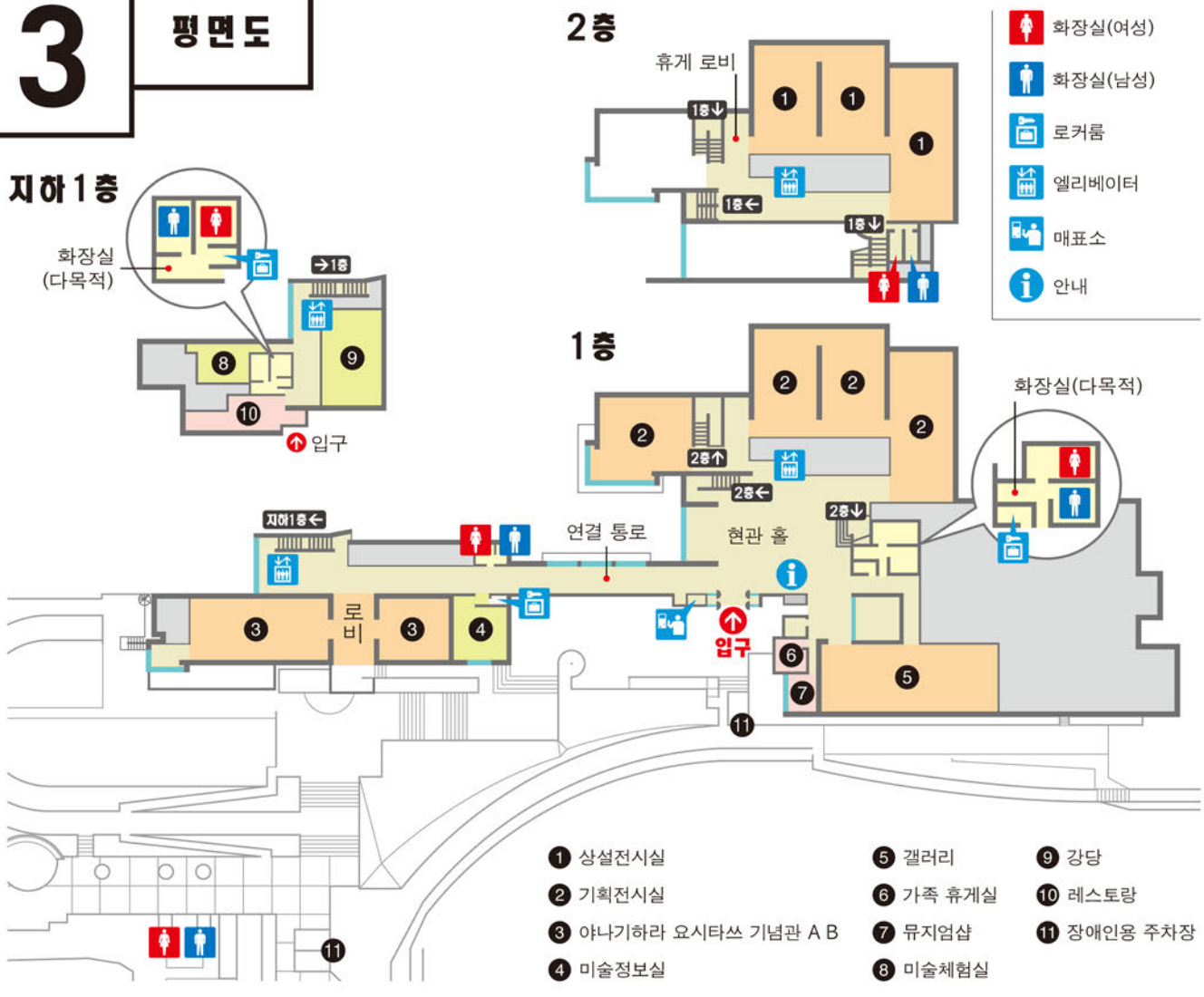
특별 전시회는 별도 관람료가 필요합니다.

●맹인 안내견은 미술관에 입장 가능합니다.

●미술관에서는 무료로 휠체어 대여가 가능합니다.

●전시실 안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전시실 접수처에서 신청하십시오. 촬영 가능한 경우에는 허락 증명 완장을 대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 삼각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시실 이외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3 평면도



4 오시는 길

주소:514-0007 미에현 쓰시 오타니초 11 TEL:81-59-227-2100
http://www.bunka.pref.mie.lg.jp/art-museum/

미술관 주변 지도

미술관 오시는 길 쓰역(긴테쓰선·JR선)에서 서쪽으로 도보 10분. 혹은 쓰역 서쪽출입구 1번 승차장에서 미에교통버스〈니시단지 순회〉, 〈하이타운 행(히가시단지 경유)〉, 〈유메가오카단지 행(종합문화센터 앞 경유)〉,〈종합문화센터 행〉을 타고 〈미술관 앞〉에서 내리십시오. 소요시간 약 2분입니다. 거가서 도보 1분 거리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광역 지도

5 주된 소장품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1617-1682)
《알렉산드리아의 성 카타리나》
1645-1650년경
이것은 무리요가 그린 커다란 그림입니다. 무리요는 스페인 바로크시대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어느 날 카타리나는 로마 황제에게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카타리나는 예수를 깊이 신앙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카타리나가 벌을 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소가 쇼하쿠(1730-1781)
《죽림칠현도》 제작연도 미상
소가 쇼하쿠(曾我蕭白)는 에도시대(1603~1867년)에 활약한 화가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700 여년 전에 중국 산속에서 살았던 일곱 명의 현자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일곱 명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옛부터 많은 화가들이 그들의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소가쇼하쿠는 많은 화가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일곱 명 중 한 명이 놀다 지쳐 산속의 집을 나가려고 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프란시스코 고야(1617-1682)
《알베르토 포라스텔의 초상》
1804년경
고야는 사람을 잘 관찰하고 뛰어난 기술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알베르토 포라스텔(1737-1820)은 스페인의 군인입니다. 스페인 총리이었던 고도이는 그림 수집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 그림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귀스트 르누아르(1841-1919)
《파란 옷을 입은 여인》 1876년경
이 그림은 르누아르가 그렸습니다. 파리 사람들을 그린 유명한 《물랭 드 라 갈레트》(오르세 미술관 소장)와 같은 시기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르누아르는 사람이 많고 활기찬 곳이나 젊은 여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클로드 모네(1840-1926)
《다리에서 본 아르장퇴유 박지》
1874년
모네는 1871년부터 7년 동안 파리에서 가까운 아르장퇴유에서 살았습니다. 이 그림은 첫 번째 인상파전이 열린 해에 완성되었습니다. 모네는 빛을 멋지게 그려냈습니다.

5 주된 소장품

하시모토 헤이하치(1897-1935)
《고양이 A》 1922년
하시모토 헤이하치는 미에현 이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을 나무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긴장감이 있는 표정의 이 고양이는 자기 자신이라고 헤이하치는 말했습니다.

사에키 유조(1898-1928)
《성 안나 교회》 1928년
사에키 유조는 파리의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30세 때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유화에 동양에서 시작된 먹그림 기술을 도입하여 독특하고 훌륭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토나가 사다마사(1922-2011) 《빨강과 노랑과》 1966년
모토나가 사다마사는 미에현 이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로 일본과 세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그림을 앞면을 위로 해서 작은 돌을 놓고 물감을 천천히 흘려서 그렸습니다.

후지시마 다케지(1867-1943) 《다이오곶에 밀려오는 거센 파도》 1932년
후지시마 다케지는 미에현에서 교사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유럽 그림을 공부하여 아름다운 색채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미에현 남쪽 바다를 그린 것입니다.

야나기하라 요시타쓰(1910-2004) 《바람 속의 까마귀》 1982년
야나기하라 요시타쓰는 43세 때 프랑스에 갔습니다. 또다시 조각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서 4년 동안 지냈습니다. 파리에서는 자코메티 등의 조각가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1966년부터 새 조각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 속에 있는 이 새는 이 조각가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